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원산구두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원산 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몰라보게 변모되었다고, 생산건물들과 주변환경이 깨끗하다고, 정말 멋있다고, 결만 보고서도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하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구내에 건립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표식비와 새로 꾸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출작업반, 갑피직장, 제화직장을 비롯한 생산공정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개진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영활동의 정보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결과 로력과 자재,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생산량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고 하시였다.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의도대로 각계각층의 요구와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질 좋은 구두들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짜고들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구두의 무게도 몸소 계량해보시면서

신발을 경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도 전진을 이룩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회의실, 리발실, 미용실, 목욕실, 식당, 침실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과 야외체육시설들, 휴식터를 잘 건설하였으며 종업원들이 원격교육을 받으며 대학과정을 마칠수 있게 과학기술지식보급제도 훌륭히 꾸려놓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원산구두공장을 우리 나라 신발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킨데 맞게 공장에서는 질 좋고 맵시있는 구두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특히 질제고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매봉산》상표를 단 공장제품이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개진한 원산구두공장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면서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공장을 로동자들의 궁전이라고 부른다는데 그럴만하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방대한 개진공사를 당이 바라는 기준대로 최상의 수준에서 결사관철한 김창룡동무가 사업

하는 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시간을 내어 꼭 기념사진도 찍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원산구두공장을 개진한 다음 다시 찾아와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신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공장의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공업부문에 주신 교시를 연구하다가 장군님께서 품들어 꾸려주신 평양화장품공장의 생산실태를 알아보고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구내에 건립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사적비와 모자이크벽화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화장품 직장, 세수비누직장, 견본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의 생산공정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 화장품의 품질을 담보하고 그 관리를 원만히 할수 있게 하는데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석 및 검측설비들을 그쁘히 갖추기 위한 사업,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포장용기와 상표도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 새로 꾸린 과학기술지식보급실도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어디 가나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있는것이 하나의 풍경으로 되고있다고,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일수 있게 과학기술지식보급실운영을 잘하여야 한다고 이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은하수원을 돌아보시고 자체의 힘으로 편의후생시설들을 잘 꾸렸다고, 일군들이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마음쓰고있는것이 알린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은 우리 당이 깊이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올해를 화장품공업발전의 분수령이 되게 하자고 하시면서 공장의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타격훈련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훈련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항공모함을 가상한 섬에 대한 군종타격진행순차와 방

법을 료해하시고 먼저 근위항공사단과 련대들에 전투출동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투비행사들의 초저공비행과 도약에 의한 습격기동을 보시며 정말 잘 타오, 마치 우리 조국의 국조인 참매를 방불케 하오라고 하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훈련은 미제가 새 전쟁도발의 도화선

에 불을 달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고 조선반도부근 작전수역에 기여들기만 하면 적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은 물론 우리가 마음먹은 적의 모든 목표가 부나비신세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미제침략군 항공모함타격단에 대한 군종타격훈

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적의 허점을 잘 알고 빨찌산식전법으로 적의 중추를 호되게 답대기기 위한 전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한다면 항공모함도 얼마든지 수장해버릴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군종부대들의 작전능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전체주의》요 뒤요 하면서 걸고들고 우리 인민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그 무슨 《변화》의 방법으로 붕괴시킬것이라고 공공연히 짓어대는 미친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고 단호히 공언하시오 우리는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수 있으며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되어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전투비행사들, 인민군대안의 공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해 첫 비행전투훈련명령을 훌륭히 수행하고 최고사령관의 특별명령으로 표창휴가를 갖던 전투비행사들을 귀대하기애 앞서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당중앙집무실에서 나오시자 전투비행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합쳐 비행사들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지, 총대전우로 믿고 내세워주시며 대해같은 은정을 거둬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격정에 겨워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행전투훈련에 참가하였던 전투비행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그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해 첫 비행전투훈련명령을 훌륭히 수행하고 최고사령관의 특별명령으로 표창휴가를 갖던 전투비행사들을 귀대하기애 앞서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2014년도 건설정형총화를 위한 군정간부회의참가자들, 중요대상건설에 이바지한 인민군대안의 공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똑똑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기둥, 주력군인 인민군대가 2014년에도 결사관철의 정신, 조선속도창조의 기상을 발휘하여 1월8일수산사업소, 위성과학자주택지구, 5월1일경기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10월8일공장 등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참가자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회의를 통하여 지난해 대상건설과정에 얻은 경험과 교훈



을 분석총화하고 올해 인민군대앞에 나선 건설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문제들을 토의하였다고 하시면서 회의참가자들, 중요대상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인민군대안의 공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올해에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

설을 우리가 다 말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돌격속도로 온 나라 인민을 총공격전승리로 선도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인민무력부 기공구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인민무력부 기공구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시회장에 인민군대에서 새로 창안제작하였거나 장비하고있는 350여종에 35만점의 각종 기공구들이 전시되어있는데 정말 불만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무력부 기공구전시회는 군인건설

자들이 당에서 맡겨준 건설대상들을 불이 번쩍 나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해 얼마나 머리를 쓰고 헌신분투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위생자기와 각종 블록, 대형타일, 철울타

리, 쇠그물울타리, 수지판, 공원용의자, TV락을 비롯한 각종 건재 및 건구류들과 가구비품들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건재 및 건구류들과 가구비품들의 가지수도 많고 질도 높다고 하시면서 당의 방침대로 건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지시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대상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기공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승고한 사랑과 의리의 전설로 영원히 전해질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1월 10일 저의 외할머니 김순임이 세상을 떠난것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화환을 보내주시었으며 장의를 잘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이야기는 만사람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습니다.

외할머니로 말하면 락동강의 불바다를 헤쳐온 전쟁로병도 아니며 부강조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공적도 별로 없는 너무도 평범한 녀성입니다.

남다른데가 있다면 조국해방전쟁시기 남편(리인모)을 전선으로 떠나보낸 후 40여년세월 생사를 알길 없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말은 직책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을뿐입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초부터 천만군민을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으로 힘있게 불리일으키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힘있게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것을 두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대해같은 은정을 베푸시고 외할아버지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시대에만 나올수 있는 신념과 의지의 전형이라는 최상의 믿음과 영예를 또다시 안겨주시었으니 저희 유가족은 한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며 위대한 태양의 사랑을 전설처럼 전하여가고 있습니다.

### \* \* \*

인간의 가치는 물질생활의 풍요나 오래 살았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참답게 살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고 봅니다.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삶과 죽음의 계선을 넘나들며 참혹한 옥중고초를 불굴의 신념으로 이겨낸 비전향장기수들의 이야기가 가장 고귀한 삶의 찬가로 메아리치는것은 그때문입니다.

그러한 신념의 강자들이 한두명도 아닌 금벌의 대하로 굽이치는 경이적인 화폭에 우리 수령님시대, 우리 장군님시대의 위대함이 그대로 비껴 있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도 그들중의 한 사람입니다.

망국의 세월에 유복자로 태어난 외할아버지는 어느 시인이 노래한것처럼 아버지없는 소년의 슬픔보다 조국이 없는 청년의 슬픔을 더 뼈아프게 새기며 성장하였습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이신 김형권선생님께서 올리신 과발리의 총성과 더불어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을 재생의 빛발처럼 받아안은 그는 홍안의 시절에 김일성장군님 슬하에서 싸우고싶은 결심을 품고 동북광야를 누비였습니다.

그 나날에 감격스럽게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뵈우고 가르치심을 받는 남다른 행운을 지녔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을 품고 북부국경일대와 서울은 물론 도교로까지 건너가 반일항전으로 대중을 불리웠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에 리인모는 하늘에서 푹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를 세계적으로 이름난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만들어준것은 조국광복회조직이었고 그 조직의 씨앗을 삼천리 방방곡곡에 뿌리기 위해 친신만고를 다한 백두산의 투사들이었다고 쓰시었습니다.

사령부의 안녕을 바라며 스스로 허를 꿋고 교수대에도 웃으며 오르는 투사들의 모습은 외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수령님을 받들어 한생토록 변함없을 신념의 기둥을 굳게 세워주었습니다.

마침내 해방된 조국땅에서 수령님의 당의 당원이 된것이 그리도 가슴벅차 개마고원을 넘나들며 선동연설을 하고 사무실의 불을 밝히며 건국열로 가슴불태운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런 리인모를 사랑하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런 리인모를 한생토록 기다렸습니다.

온 강도가 미체침략자들을 맞받아 일떠섰던 전화의 나날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떠나간 남편을 그리며 외할

머니는 이밤도 그대는 짝터에서 원수향해 세찬 불을 뿜겠지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승의 추포가 오르고 전선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가슴가득 훈장을 달고 돌아올 때 남편은 망망대해에 사라진것과 같이 아무런 소식조차 없었으니 외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희생인가, 원수들에게 체포되었는가.

해방직후 갖 스물이 지난 젊은 가슴에 당원증을 받아안고 당앞에 다진 맹세대로 한생을 샘물처럼 깨끗하게 살려고 모지름씨운 외할머니에게 있어서 남편의 무소식은 참으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만감이 교차되고 착잡한 생각에 싸일 때마다 추억의 쪽문을 열고 외할아버지가 찾아오곤 하였다고 합니다.

해방과 더불어 흘러가는 날과 달을 황금시절에 비유하며 이런 꿈같은 생활이 공화국만이 아닌 남쪽땅에도 펼쳐져야 한다고 꿈쩍던 남편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이런 행복을 스스로 버릴수 있을까.

결혼식날 노래를 요청하는 동지들 앞에서 온넋으로 혁명가요 《적기가》를 부른 남편이었습니다.

...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고 묻는 안해가 아니라 내 남편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놓으라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 안해로 한생을 살자.

이렇게 심장과 속삭이며 기다림의 날과 달, 해를 이어가는 외할머니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것은 남편에 대한 당과 조국의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외할머니를 공산대학으로 떠밀어주는 손길이 되어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고 딸을 대학공부를 시켜 당원으로 키워주고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까지 손목에 채워준 대해같은 사랑으로 걱정을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애라는 마음에 통일을 안고 한오리 한오리 머리에 흰서리를 얹으며 장장 40여년, 그렇게도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며 가슴에 재가 없던 외할머니가 드디어 살아있는 남편, 싸우는 남편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니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무엇에 비길수 있었겠습니까.

1989년 남조선잡지 《말》은 《전인민군중군기자의 수기》라는 부제 아래 외할아버지의 투쟁소식을 네번에 걸쳐 실었습니다.

그 글을 통해 외할머니는 함께 생활하면서도 미처 다 몰랐던 불굴의 인간, 고결한 인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 상여에 누워서나 나갈수 있다.》는 남녘의 형무소와 교도소, 보안감호소에서 모진 고문과 기아, 추위와 고독과 싸우며 30여년을 하루와 같이 수령님의 전사로서의 량심과 지조를 꿋이 지켜온 신념의 인간, 옥중에서 시신으로 굳어질지언정 당앞에 한번 다진 맹세를 저버릴수 없고 사랑하는 안해앞에 욕된 남편이 될수 없기에 전향서 한장만 쓰면 달리 될수 있는 인생의 선택앞에서 흔들림없이 참된 삶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온 의리의 인간.

그 신념의 인간, 의리의 인간이 다름아닌 남편이라는 생각에 가슴 젖을수록 외할머니는 그를 기다려 바쳐온 한생이 더욱 궁지스럽게 느껴졌고 남편을 만나는 그날이 조국이 통일되는 날이라는 생각에 온넋으로 통일을 부르며 밤을 지새곤 하였습다.

그런데 민족분열의 세월속에 묻혀버린 전사의 운명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 심혈을 바쳐가시는 절세의 위인들께서 계시는줄 어찌 알았습

니까.

자신께서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시며 신념의 인간, 의리의 인간들을 행복과 영광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시는 아버지수령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드시어 외할아버지를 송환하기 위한 작전을 몸소 펼치시고 이끄시어 끝끝내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시였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원수들의 복침판이 극도에 이르러 공화국에서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핵무기전파방지구약탈퇴로 세계의 시선이 평양에 모아지고 전선에서는 총포란이 재워지던 참으로 준엄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세가 긴장하고 준전시상태대로 하여도 리인모를 데려와야 우리가 혁명동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것으로 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뜨거운 동지적사랑은 마침내 분계선 빗장을 열어젖히고 한 전사가 지옥행으로부터 락원행으로 인생전환의 궤도에 오르는 력사의 기적을 안아왔습니다.

조국의 품에 안겨 위대한 대원수님들로부터 받아안은 사랑은 또 얼마나 큰것입니까.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시금 더듬어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감격도 새로운 주제82(1993)년 4월 15일, 만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뜻깊은 생신날 아침에 친히 병원에 찾아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외할아버지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리인모 동무는 원수들의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혁명적지조와 절개를 지켜 용감히 싸움으로써 조선로동당의 고결한 혁명정신과 승고한 품모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말씀을 하여주시면서 몸소 수표하신 대원수님도 안겨주시고 자신의 존함이 새겨져있는 금시계도 채워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크나큰 걱정에 눈굽을 적시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도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를 안겨주시고 외할머니에게 수십년세월 남편을 기다려 녀성의 지조를 지켜낸 동무도 영웅이라는 값있는 영광을 안겨주시었으며 외할아버지를 앓히고 그 곁에 서시어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불멸의 화폭을 남기시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을 맞으며 로병대회가 열린 그날은 외할아버지가 위대한 장군님을 처음으로 뵈은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저를 구원하여주시는 은인이시구나 하는 생각으로 감격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수령님 가장 가까이에 앉혀주시며 따듯이 보살펴주시니 외할아버지는 장군님의 그 깊은 의리와 사랑앞에서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었습니다.

해의동포들이 지성껏 귀한 이불을 지어드렸을 때에도 자신보다 리인모가 덮어야 한다고 따듯이 이르시며 보내주시고 해방직후 학생들에게 음악공부를 가르쳐줄 풍금을 사달라고 한 안해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마음까지 헤아려 친히 피아노를 선물로 보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외할아버지가 헌신에도 썼듯이 끊임없이 아껴주고 내세워주고싶어하시는 은혜로운 손길아래 저의 집은 수령님사랑, 장군님사랑으로 차고 넘쳤고 외할아버지는 김일성훈장수훈자로, 공화국2중영웅으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가장 값높은 삶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었습니다.

혁명의 길에서 신념을 제일로 중시하시며 신념을 저버리는 너절한 인간에 대해서는 끝없이 라매하시고 신념을 지킬줄 아는 전사들에 대해서는 뜨겁게 사랑하시며 하늘같은 복을 내려주시는분이 우리 수령님이시고 장군님이심을 온 나라 인민들은 저의 외할아버지가 받아안은 크나큰 은정앞에서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습니다.

참으로 신념은 승리였습니다. 인생의 환희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신념을 지킨것으로 하여 외할아버

지는 잃었던 인생의 모든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긴강도 되찾고 청춘도 되찾았으며 행복과 영광의 최절정에 높이 올라설수 있었습니다.

더우기 외할아버지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준것은 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신념의 강국으로 우뚝 솟아 빛나는 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백두의 넋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며 사회주의수호전, 붉은기수호전으로 천만군민을 불리일으키시는 위대한 장군님,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끄떡없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떨쳐주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기상과 당력에 온넋으로 매혹되어 외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념이라는 위대한 강철의 인간 김정일, 당신의것이옵니다라고 걱정을 더쳤습니다.

장군님께서 붉은기철학을 내놓으시면 전민이 붉은기를 들고나가고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휘날리시면 전민이 병사가 되고 총포탄이 되는 나라, 《가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열혈의 심장들이 굴착기가 되고 불도젤이 되어 대통령을 열고 만년언제를 쌓으며 강성변영의 새 력사를 펼치는 조국.

바로 이 위대한 조국이 한점 빛도 없는 남녘의 차디찬 감방에서 희망의 등대로 우러르고 또 우러른 그 조국이 다름아닌 이 위대한 조국을 신념으로 받아들었다고 생각할 때 그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수령님의 품, 장군님의 품이라고 노래하는 우리 조국은 신념을 지켜 받들며 밋이 있고 인생의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 아낌없이 위대한 품이라고 외할아버지는 늘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께서 위대하시고 장군님께서 위대하시어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떠받들리는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비전향장기수들의 값높은 삶도 있는것입니다.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품에 안기어 한생에 누릴수 있는 복이란 복은 다 받아안았으니 외할아버지에게 무슨 여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외할아버지가 육체적생명을 마쳤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인민장》이라는 새로운 장의 형식을 내오시는 특별조치까지 취해주시어 외할아버지가 인민이라는 후한의 존재와 더불어 영생하도록 하여주시었으며 평양의 통일 거리에 반신동상까지 세워주도록 하여주시었습니다.

정녕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것이 혁명전사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의리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그대로 부여주시며 외할머니를 외할아버지와 함께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세워주시었으니 무슨 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 송구스럽기만한 저희들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신 믿음과 사랑에는 신념을 지켜 싸운 전사 리인모에 대한 동지적의리와 함께 외할아버지를 신념과 의지의 전형으로 영원히 내세우고 우리 후손들이 신념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도록 하시려는 승고한 뜻도 담겨있다고 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조선혁명의 신념으로 개척되고 신념으로 전진하며 신념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혁명입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신념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귀중한 정신적재부로 되고있습니다.

인민의 모든 꿈이 꽃피어나는 강성국가, 사회주의문명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우리 조국이 힘찬 보폭을 내디딜수록 그 앞길을 막아나서는 미국을 비롯한 력사의 반동들의 준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습니다.

반공화국핵광란에 미쳐돌아치던 적들은 그것으로는 더러운 목적을 이룰수 없게 되자 최근에는 비렬한 《인권》모략소동에 더욱 매달리며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투쟁과녁은 변하지 않았고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의 행군길은 계속되고있습니다.

력사의 모진 광풍을 쳐물어내고 기어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시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백두의 정신으로 삼천리강토를 붉게 물들이시고 백두의 칼바람으로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버려주게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땅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보란듯이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강성변영의 열매들을 주렁지우며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억센 기상인양 태양이 안기여준 신념이 얼마나 억세고 강한가를 힘있게 과시하고있습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항일혁명선렬들이 피뎠는 심장으로 아로새긴 이 글밭이 투쟁의 기치마냥 나뭇기는 속에 더욱 백배해진 신념의 대오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섰습니다.

그 전례에 저의 외할아버지도 서있습니다.

신념을 지켜 싸운 삶이 얼마나 값높은가를 행복만을 알고 자란 새세대 청년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며 어제날의 열정적인 선동일군의 모습으로, 종군기자의 모습으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의 모습으로 서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태양의 품에서 이렇게 영생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은 승리와 기적의 원천입니다.

신념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백두산강국으로 무궁토록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며 이 땅우에 강성변영의 새봄은 환희롭게 펼쳐지고 통일추포성은 장쾌하게 터져오를것입니다.

얼마전 저희들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찾아 또다시 애국렬사릉을 다녀왔습니다.

인생길에 시련도 파란곡절도 있었지만 수령님을 따르고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값높은 삶도 빛난다는 굳은 확신을 안고 혁명적신념으로 한생을 빛나게 장식한 그들이 더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를 이어 끝없이 배풀어지는 위대한 태양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심장의 대화를 나눌수록 외할아버지가 조국의 품에 안긴 10돐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께 올린 편지의 구절이 삼삼히 감혀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제날 종군기자였던 이 리인모와 가족들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이 한길을 가고가겠습니다.

만약 그 길에서 이 리인모가 쓰러지면 안해와 딸이 가고 그들이 못다가면 손자, 손녀들이 가며 대를 이어 백두산장군을 영원히 받들어갈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리인모의 유가족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충직했던 선렬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충정의 대, 신념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것입니다.

백두산위인들께서 외할아버지 리인모와 저희 가족에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신념을 지켜 싸운 혁명전사에 대한 승고한 사랑과 의리의 전설로 영원히 전해질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보람

# 백두산강군의 승리의 역사는 말한다

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기자회견에서 북조선에 대해 군사적해결책은 없다고 자인하였다.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군사적힘으로 압살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해온 미국, 세계제일의 군사력을 뽐내며 힘으로 못해낸 일이 없는 미국이 조선과의 세기를 이어오는 군사적대결에서는 처참하게 패하였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한것이다.

조미군사적대결에서 미국의 참패, 이것은 공화국 군대와 대결에서 미국이 졌다는 의미이다.

하다면 적대국인 미국도 두려움에 차서 바라보는 이 땅의 강군은 과연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공화국의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는 장편소설 《힘》에는 그에 대한 답이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위훈을 떨친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 옛 문화부사단장 안동수영웅을 원형으로 한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최후의 시각 마지막 힘을 모아 이런 말을 남긴다. 《참모장동무, 우리에게 힘이 있소. 우리 힘은 김일성장군이시오. 장군님은 우리 승리요. 우리 영원히 이기오.》

물론 이것은 작품의 한 대목이다. 그러나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역사적사실에 기초한 생동한 예술적형상이다.

위대한 령장 밑에 약졸이 없고 탁월한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힘이러는 승리의 진리를 조국해방전쟁사가 가르쳐주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정규군으로 강화발전된지 두해밖에 안되었지만 110여차의 침략전쟁에서 한번도 패한적 없다는 《강대성

의 신화, 정복신화》를 자랑하는 미국을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했다.

한 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한 조선인민군은 대를 이어 위대한 천출명장을 모시어 불패의 력사와 강군의 전통을 길이 이어올수 있었다.

1960년대의 미국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과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 1990년대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있는 총포성없는 조미핵대결전을 비롯한 적대세력과의 모든 대결마다에서 인민군대는 언제나 련전련승을 기록했다. 한때 강군의 저력을 자랑한 군

대가 총성 한번 울리지 못하고 조락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외세의 침략전, 정복전에 국권을 짓밟히고 류혈참극이 초래된 비극적 현실은 위대한 령장을 모시지 못할 때 총대에 녹이 쏘고 군력은 약화되어 나라와 민족이 불우한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위인은 시대가 알고 역사가 기록한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주력으로 한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새로운 조선전쟁을 몰아오려는 미국의 기도를 분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격찬하

여 인디아의 사회정치학박사 비슈와나스는 세계적인 명장 김정일령도자는 조선을 무한대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만드 시어 제3차 세계대전이나 대열 핵전쟁을 막고 수십억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신 대성인 이시라고 토로했다.

조선인민군은 오늘 또 한분의 백두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 밑에 자랑찬 력사와 승리의 전통을 길이 떨치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조선반도를 아시 아라는 《큰 고기덩어리》를 잘라내는 《단검》으로 보고 영영 타고앉으려는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분별없는 침략책동에 대처해

조선인민군은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실전능력을 완비하고 있다. 출격명령, 출항명령을 기다리는 비행기편대들, 함선들 그리고 포신을 추켜든 방사포들과 전략군의 전술로케트들을 비롯한 군종, 병종, 전문병들의 모든 보복, 타격 수단들이 파격을 조준하고있다. 적대세력이 감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일격에 제압하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것이 군대와 인민의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는 결코 고칠수도, 숨길수도, 지어낼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력사적으로 된때를 맞고 녹

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직스러운 전통이고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졌대기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어길수 없는 이 법칙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얼마전에도 날로 더욱 악랄해지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타격집단 장갑보병구분대들의 겨울철도항공격연습에 이어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을 직접 조직지도하시면서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율, 쓰디쓴 참패를 우리와의 전쟁을 통하여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자고,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되어있다는 추상같은 초강경선언을 하시며 미제국주의의 최후 멸망을 선언하시었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공화국의 위력에 대해 남조선언론 《자주민보》는 미국과 격렬한 전쟁을 벌인 북은 60여년이 지나도록 종전에 이르지 못한 그 전쟁을 기어이 승리로 끝낼 최후결전을 준비하고 대기중이다. 인민군은 미군을 단숨에 굴복시킬 위력한 공격무기들을 실전배비하고 최고사령관의 총돌격명령을 기다리고있다

고 전했다. 어제도 오늘도 백승을 떨치는 무적강군 조선인민군의 승리의 역사는 나라의 군력과 불패성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으며 천출명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강군이 있어 공화국은 든든하고 민족의 안녕과 무궁번영도 굳건히 담보된다는 진리를 옹변해 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 뜻깊은 2월 8일과 더불어 전해지는 이야기

2월 8일은 조선인민군창건 일인 4.25와 더불어 해방후 건군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백두산철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며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수십성상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고있는 인민군대의 승리의 역사는 바로 이날과 잇닿아있다.

강병은 부국의 기초라고 하였다.

해방의 봄을 안아온 항일대전의 력사적총화로부터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강력한 군력에 있다는것을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지체없이 자위적무장력건설에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강해방된 조건에서 강력한 정규군대를 마련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려워도 우리의 힘으로 꼭 해야 하며 또 능히 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시었다.

군사정치간부양성의 모체기지로 창설된 평양학원은 정규무력건설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전하고있다.

여러곳에 일군들을 파견하시어 학원자리를 알아보게 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45년 11월 중순 어느날 남포지구에 적합한 자리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일군들과 함께 몸소

현지를 찾으시었다.

그곳은 바로 남포에서 동쪽으로 몇십리가량 떨어져있는 지올리라는 마을이였다.

수령님께서는 건물을 돌아보시고 나서 그 앞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으로 오르시어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학원의 위치를 이곳으로 정해주시었다.

그리고 잡관목들을 헤치며 산등성이에도 오르시어 훈련장과 사격장으로 쓸 장소들도 정해주시었다.

떠나시기에 앞서 수령님께서 학원의 이름은 조국에 돌아와 처음으로 세우는 학원인 것만큼 평양의 이름을 따서 평양학원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현명 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해방된지 불과 석달만에 새 조국건설과 정규무력건설에 이바지할 첫 군사정치간부양성기체인 평양학원이 창설되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몸소 평양학원의 명예원장이 되시어 학원의 교육사업을 세심히 지도해 주시었다.

정규무력건설에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에 의해 이후 각 병종의 전문적인 군사지휘관을 양성하는 중앙보안간부학교도 태어났고 군사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모든 교육방법과 내용을 철저히 우리 식으로 진행하는 문제도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군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또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던가.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찾으시어 중대병실들을 돌아보시던 그날 건국실의 벽면에 그려볼인 다른 나라 명인들의 초상을 보시고 왜 우리 나라 명인들의 초상은 하나도 걸어놓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참다운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할수 없다고 하시며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도록 손잡이 이끌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마침내 1948년 2월 8일 평양역 앞 광장에서는 백두산3대장군을 한자리에 모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경축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힘차게 울려 퍼지는 《인민군행진곡》, 펄펄 휘날리는 군기, 총검을 비껴들고 보부당당히 나아가는 인민군군인들의 모습, 이것은 조선인민군의 정규적모를 갖추기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정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인민군 열병대대를 사열하신 소식은 사람들속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삼시에 전국각지로, 전세계에도 퍼져갔다.

들은 저들의 멸망의 선고와 같은 이 무서운 소식에 비명을 울렸다.

그때로부터 흘러온 나날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정규적혁명무력으로서의 강화발전이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에서 이룩된 얼마나 빛나는 승리인가 하는것을 실증하여주었다.

우리 군대는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쳐물리치고 전승의 기적도 안아왔고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선군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떨쳤다.

불세출의 선군대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탁월한 선군령도를 받들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불장난소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였다. 오늘은 또 한분의 회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더욱 파시하고있다.

백두산강군의 위력이 힘있게 펼쳐질수록 우리 인민은 력사의 2월 8일과 더불어 불멸의 건군사에 씌어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을 더욱 뜨겁게 돌이켜보면서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민족의 영광을 끝없이 전하여 가고있다.

본사기자

주제36(1947)년 9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병기기술자들을 부르시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정규무력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서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세워 간부들도 양성하고있고 부대들도 조직하고있는데 무기가 걸렸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자기 군대를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무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어 우리는 일본놈들이 가지고있던 38식이나 99식보총과 같은 낙후한 무기가 아니라 한계단 발전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뒤떨어진 보총이나 만들어가지고서는 지금 우리가 맞서고있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놈들과 싸울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기관단총이나 권총 같은것을 만들어보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치시었다.

무기생산에서 세월을 주름잡을 비상한 나래를 달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르며 병기기술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리하여 첫 기관단총을 생산하기 위한 병기공장 로동자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아무런 기술적담보와 경험도 없이 맨손으로 기관단총을 만들어낸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병기공장 로동자들

과 기술자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무기를 분해하여 설계도면을 그렸으며 여러가지 부분품들을 망치로 두드리고 줄칼로 쓸어가면서 이악하게 투쟁하였다.

그들의 고심어린 노력과 긴장한 투쟁에 의하여 20일만인 10월 상순에 드디어 첫 기관단 총시제품이 나오게 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못내 기뻐하시며 병기공장 일군들을 부르시어 그들이 올린 첫 기관단총시제품을 보아주시고 무기수리나 하던 동무들이 처음으로 만든 기관단총이지만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거듭 치하하시었다.

주제37(1948)년 12월 12일 드디어 빈터에서 일떠세운 우리 병기공원의 첫 제품인 기관단총에 대한 국가시험사격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험사격장에 나가시어 몸소 시험사격을 하시었다.

야무진 총소리가 울리며 멀리 푸른 하늘가로 메아리쳐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 기관단총으로 높이 올리신 총성! 그것은 공화국에서 주제적인 병기공원의 창설을 알리는 첫 총성이였으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의 역센 기상을 온 세상에 시위한 장엄한 신호였다.

본사기자

### 첫 기관단총

세상에는 저만 똑 제일인듯 이 행세하면서 남에 대해 시비 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때없이 공화국을 걸고들면서 그 무슨 《변화》에 대해 떠드는 미국이나 그 나라의 말이라면 덮어놓고 앵무새처럼 따라 외우는 추종세력들이 그렇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단절된 국가》라느니, 《전체주의》라느니, 《북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느니... 마치 공화국은 고립무원하

고 아무런 변화발전도 없는듯이 엮어대는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조선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회의심이 갈마들군 한다.

조선은 과연 정체된 나라이고 문명세계와 멀리 떨어져있는 나라인가.

### 조선 속도창조의 의미

어떤 물체나 사물현상도 고정불변한것이란 없다. 이것은 변증법적유물론이 밝힌 물질세계의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이다. 사실상 물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사멸된것이나 같다. 변화속에 존재하고 변화속에 발전 또는 퇴보하는것이 물질세계의 운동법칙이다.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이다. 북에서 변화가 없다면 존재 자체를 유지할수가 없다.

하다면 변화가 없었는가. 있어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공화국에서 인민정권이 수립된지 70년, 백년도 못되는 그 사이이 북은 얼마나 달라보게 달라졌는가.

해방전 낮이나 호미같은 간단한 소농기구들이나 겨우 만들던 락후한 식민지농업국가 가 오늘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세계에 우뚝 섰다.

과학기술은 최첨단을 달리고 경제의 규모와 발전수준은 지난 시기와는 대비도 할수 없게 장성강화되었다. 해방직후 기관단총을 처음 만들어내었던 공화국이 지금은 그 어떤 현대적인 공격 및 방어무기들을 자체로 척척 만들어내고 대양 건너 미국도 순간에 불바다에 잠글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들과 운반수단들도 개발하였다. 전조선을 지배할 야망에 사로잡힌 미국이 60여년전에는 공화국의 군대를 알잡아보고 북침전쟁의 불을 질렀다면 오늘에 와서는 대통령 오바마가 기자회견에서 북조선에 대해서는 군사적해결책이 없다고 인정할 정도로 군사강국으로 키돌음하였다.

해방전 불과 몇명밖에 안되는 기술자와 단 하나의 대학도 가지지 못하고 문맹자가 가득

했던 조선이 백수십만의 인텔리대군을 가지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새로운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해 야심차게 노력하는 경이적인 현실, 어제날의 식민지반봉건국가가 세계에 빛을 뿌리는 자주와 존엄의 나라, 일심단결을 이룬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 이회한한 기적을 변화가 아닌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는가.

민족의 반만년 꿈과 리상을 모두 풀어줄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시대에 조선의 변화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졌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 땅의 거리거리, 학교와 일터에 나뭇기는 이 구호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솟구쳐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조선의 역센 기상과 변혁의 의지가 응축되어 있다.

공화국은 지금 세월을 주름잡으며 천리마속도에 평양속도, 80년대속도를 더한것보다 더 빠른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속에 비약의 나래를 한껏 펴고있다. 도처에 일떠서는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비롯한 시대적기념비들은 백년천년이 가도 손색이 없을 세계적인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보통 1년 또는 몇년이 실히 걸릴 건설공사도 수개월만에 끝나는 등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것이 현실이다. 그속에서 수도 평양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도시와 마을들은 한해가 다르게 몰라보게 달라지고있으며 공업이 보다 현대화되고 과학적인 영농방법과 포전담당책임제의 도입 등으로 백년왕가물에도 좋은 농사작황을 이루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물고기가 없다고 하던 바다가 황금해로 전변되어가고 세계도 깜짝 놀랄 모란봉악단의 진취적이며 혁신적인 공연이 펼쳐지며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일어 번지고 국제체육무대에서 한해에 백수십개의 금메달을 따내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전변의 희소식들은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이 결코 멀지않은 눈앞에 있음을 실물로 확증해주고있는것이다.

이처럼 오늘 공화국에서의 급속한 변화발전은 그 폭과 심도, 속도에 있어서 세상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 AP통신사 전 평양지

### 변화의 끝은 어디인가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북변화》를 집요하게 주문하고 강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화국의 현실을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애써 보려 하지 않고 공화국을 정체되고 고립을 추구하는 나라로 의식적으로 여론을 몰아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변화발전이 저들의 마음과 기대, 요구에 맞지 않기때문이다. 미국과 추종세력이 바라는 《북변화》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과 제도의 변화이다. 다시 말하여 자본주의의 정치풍토와 시장경제의 도입이다.

미국의 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짚어 말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투입으로 시간이 지나면 《북조선정권이 붕괴》 될것이라는 공개적인 폭언이 그것이다. 초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체면마저 췌버린 오바마의 발언은 서방이 떠드는 《북변화》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으로 된다.

하다면 공화국은 서방이 바라는 《변화》의 궤도를 그럴수 있겠는가. 확실성있게 단정한다면 그것은 서방의 한강꿈이고 망상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왜냐면 이 땅의 주인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고 그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여기기때문이다. 세상이 열백번 뒤바뀐다 해도 사상과

국장이 《북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하고있다.》고 자기의 방문소감을 피력하고 조선을 다녀간 수많은 외국인들이 공화국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가 하면 세계적으로도 《투자의 귀재》로 널리 알려진 짐 로저스까지도 《북의 변화에 주목》 하라고, 자기가 《할수만 있다면 전재산을 북에 투자하고싶다.》고 한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보다싶이 조선은 변화정도가 아니라 일대 변혁을 하면서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고있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무섭게 변하고 무섭게 솟구치고있다.

로선을 바꿀수 없으며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가꾸어나가는 이 사회주의락원을 이 세상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다는것은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새겨진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인민을 제일로 위하는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어 백두에서 시작된 자주의 길, 신군의 길, 사회주의의 한길로 끝까지 나아가려는 천만군민의 각오와 의지는 지금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세차게 나뉘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다 말해주고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항일의 혁명투사들이 백두밀림에서 찬눈과 가랑이를 이불로 삼아 족잡을 자고 굶주림에 풀뿌리로 허기를 달래면서도, 백만대적이 사면팔방에서 달려드는 포위속을 뚫고나가면서도 심장속에 굳게 간직한 이 하나의 신념, 그것이 선군조선의 운명의 피줄기이고 귀중한 정신적창상이며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기적과 승리의 원천으로 되고있음을 이제라도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은 어제도 변화를 추구하여왔고 오늘도 래일도 끊임없는 자기 변화속에 발전해갈것이다. 그러나 그 궤도는 서방식가치관이 추구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공화국의 인민들이 바라는 변화일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발전과 미래에 이어지는것이여야 한다.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가는 변화는 참다운 변화가 아니라 가짜변화이고 죽음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과연 어느것이 새것이고 정의이고 진리인가. 약육강식을 이 세상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는 미국은 전자를 택하지만 하나의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에서 살아온 공화국의 인민들은 후자를 택한다.

이 나라 인민들은 사회주의가 좋다는것을 책에서만 배우지 않았다. 생활에서 배웠고 자신들의 온몸으로 체험하였다. 더우기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세상에서 돌도 없는 나라에서 살면서 이 사회, 이 제도, 이 정권을 생명처럼 여기고 목숨다해 지켜갈 열의로 가슴들을 불태우고있다. 집을 떠나 지어도 근로하는 인민에게 무상으로 먼저 주고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인민을 위한 행복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고마운 이 제도를 누가 버리겠다고 하랴.

조선에서 서방이 바라는 그 무슨 《변화》란 10년, 100년이 가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문무를 겸비하고 모든 분야에 막힘이 없는 조예와 뛰어난 능력으로 이 나라를 밝은 앞길에 이끌어가시는 젊고 강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또 그의 사랑의 정치, 뛰어난 정치에 매혹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를 충심으로 받들고 따르기때문이다. 김정은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사회주의문명국이 오고 더 잘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군민의 믿음은 절대불변하며 나날이 더욱 강렬한것으로 되고있다.

서방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세기 90년대말 당시 미국의 대북정책조정관이었던 이전 국방장관 페리가 조선을 다녀갔다. 그가 여러곳을 돌아보고 돌아가서 한 정 책보고-그것은 조선은 미국이 생각하고 의도하는것과는 반대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따라서 《붕괴》의 시각에서 북을 바라볼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것이였다.

그의 분석과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가. 그때로부터 근 20년이 되어오고있지만 조선은 여전히 견재하고 날로 더욱 흥하고 강해지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김정은령도자의 현지도영화만 나오면 저마다 TV앞에 마주앉군 한다. 그리고 걱정으로 눈굽을 적시기도 한다. 인민의 눈에 비친 령도자의 모습, 그것은 조선이라는 하나의 대가정을 품어 안고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위해 현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자애로운 친어버이의 모습, 승리자의 환한 미소가 어린 령도자의 자신만만하고 활력에 넘치신 모습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새로 눈부시게 일떠선 룡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등지에서 한겨울의 추위도 날리며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는 각계층 사람들로 초만원이다. 그곳에서 매일같이 울려나오고있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넘친 웃음소리, 그것은 김정은시대에 더 높이 울려가고있는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이다.

조선은 자기 식 변화발전의 길, 인민의 지향과 리상과 념원이 더욱 활짝 꽃피나고 인민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려가는 사회주의무릉도원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갈것이다.

1%가 모든것을 차지하고 좌지우지하는 미국식변화가 아니라 100%가 주인이 되고 잘사는 조선식변화를 추구해갈것이다.

사회가 리념과 정견, 자리다툼으로 갈라지고 정치적무질서와 사회적혼란, 내란이 휩쓰는 서방식변화가 아니라 령도자와 인민이 더욱 똘똘 뭉치고 사회가 최대로 안정된 조선식변화의 길로 갈것이다.

자본주의의 너 아니면 나가 아니라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 고상한 료리도덕이 차넘치는 조선식문명변화발전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것이다. 수십년전에 울려 퍼지고 오늘도 온 나라가 감동속에 부르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을 이 나라 인민들의 영원한 행복의 주제가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세포등판



문수물놀이장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인민의 행복 넘쳐나는 대동강반



위성과과학자주택지구

# 《전제조건》인가, 근본문제인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파국상태에 처한 북남관계가 개선될것을 간절히 바라고있다. 하여 6.15통일시대의 그날들처럼 북과 남의 각계층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그리웠던 혈육들도 만나고 민족의 명산에서 탐승의 기쁨도 마음껏 누리기를 고대하고있다. 그러나 2월에 들어선 오늘날까지도 북남사이에는 랭랭한 분위기만 흐르고있다.

날로 높아지는 민족의 통일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자면 어느 일방만이 아니라 북남당국이 다같이 책임지고 성의와 노력을 다해야 한다.

새해의 첫날에 공화국은 신년사를 통해 조국해방 70돛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벌여 끊어진 민족적纽帶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는 신년사의 구절구절은 그대로 공화국의 확고한 의지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대다수 언론들과 각계인사들도 북의 신년사에 담겨져있는 애국애족적립장을 적극 지지환영하면서 남조선당국도 동족의 이러한 호소에 선의로 대담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한달이 넘은 아직까지도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있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지금 조선반도에는 침예한 군사적긴장상태가 조성되어있다.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공화국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이 전쟁위협제거와 평화적분위기조성과는 관련이 없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면서 3월 초부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8월에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계획대로 강행하는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해놓은 상태이다. 또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춰가며 《련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한다는 미명하에 여전히 핵탄을 적재한 전략폭격비행대를 비롯한 침략무력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것으로 관계개선분위기를 한사코 전쟁분위기로 덮어놓으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당국은 인간쓰레기들과 극우보수언론들을 사족하고 배후조종하면서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배라살포망동 같은 비방중상을 그치지 않고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북남사이의 쌓여있는 현안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화가 진행될수 없으며 실사대화가 진행된다고 해도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지난해에 북남관계에서 있는 일련의 사건들만 돌이켜보아도 충분히 증명된다.

지난해 초 북과 남은 고위급접촉에서 일련의 합의를 이룩하고 그 리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여 여러해만에 북남사이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는 등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올랐다. 하지만 남측이 의세와 야합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 한쪽 자신에게 부과된 비방중상중지합의리행을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회피하다나니 고위급접촉합의가 리행되지 못하고 결국 북남관계가 뒤걸음치게 되었다.

또 10월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이루어진 북남당국자들의 접촉이후 긍정적방향으로 나아가던 북남관계가 왜 퇴보하지 않았으면 안되게 되었는데 남조선당국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때에도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배라살포망동을 비호두둔한 남조선당국의 불성실한 태도가 일정에 올랐던 북남대화를 무산시키었던것이다.

지난해의 이러한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공화국은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을 가로막는 의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배라살포와 같은 체제대결소동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고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리성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찬동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원적요구와 중대립장에 대해 성의있게 응할 대신 북이 《대화의 전제조건》을 내거는듯이 사실을 외포묘사해나서고있

다. 이것은 북남관계개선을 실제적으로 엄중히 가로막고있는 저들의 범죄적책동을 가리우고 책임을 북에 넘겨씌우기 위한 구차한 놀음이라 해야 할것이다.

북이 요구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중지, 체제대결소동중지는 누가 말하듯이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실리있는 대화를 진행하고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 어차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북남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대화상대방을 반대하여 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 갖은 심리모략전으로 체제압살을 시도하는 도발적인 소동들이 눈앞에서 계속 뻔히 벌어지는 속에서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실사대화를 한다 해도 똑똑한 결실을 이룰수 없으며 그러한 대화가 북남관계개선에 이어질수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결국 북남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열백번 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온 겨레는 남조선당국의 행동을 지켜보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로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 할것이 아니라 북남관계개선의 암초를 스스로 제거하는 결단성있는 행동으로 겨레의 요구에 응해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 6. 15 공동선언실천으로 분렬을 끝장내자

### 6. 15 남측위원회 학술본부가 강조

남조선인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 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가 1월 31일 서울 종로구에서 모임을 가지고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주장하였다. 모임에서 단체는 《분렬 70년, 6. 15선언실천으로 해소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6. 15공동선언이 리행되지 못하고있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였다. 《정부》가 6. 15공동선언리행과 민족자주,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탄압이 계속된다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멀어질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분렬 70년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6. 15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대결적인 《5. 24조치》를 해제하고 즉시 북과의 대화와 교류에 나서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동장군의 흑한을 한풀 꺾으며 립춘이 지났다. 민족분렬의 동토대를 가시려는 봄의 서풍인듯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북의 담대한 호소가 울려나온지도 어느새 한달이 지났다. 하지만 남에서는 아직도 대결

## 《그래도 지구는 돈다》

중세기 유럽에는 정의와 진보가 탄압당한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 카톨릭교회와 봉건제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단자》로 몰아 처형하는 종교재판소가 생기고 《이단자》는 가난, 질병, 자연재해 등을 몰아오는 《마녀》라고 하면서 탄압한것은 물론 《지동설》을 주장한 진보적인 학자들도 박해한 《마녀사냥》이 벌어졌다.

그때로부터 수백년이 흐른 오늘 남조선에서 현대판 《마녀사냥》이 벌어지고있다. 독재권력의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그가 누구든, 어떤 정당이나 단체이건 《종북》의 딱지를 받고 탄압의 세례를 당하고있다.

사회와 민족을 위해 바른 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 노동자들의 생존권호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로총, 진보정치를 주장한 통합진보당, 이렇듯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언론인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시민단체인 량심수후원회와 코리아런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단체들인 범민련, 범청학련,

##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

의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다. 그것이 바로 무모한 북침전쟁연습과 함께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지는 《종북》소동이다.

6. 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은 오래전에 《리적단체》, 《종북세력》으로 되어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교육, 노동, 정치, 법률, 언론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순차적, 계획적으로 진보세력을 하나하나 제거하려 한다. 이제는 종교계도 보수의 《이단》으로 몰려 《종북적결》의 검은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22일 남조선경찰은 어느 한 교회가 애기봉 등탑이나 배라살포가 《대북실리전》이라고 주장한것에 대해 《친북》행위라고 하면서 레배당을 압수수색하고 더우기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를 끌어내리는 무도한 망동까지 저질렀다.

이전 보수 《정권》이 《종북》을 《정권》의 적으로 몰아 《정권》을 《종북》의 명줄로 되돌리고 있다. 하기에 집권하자면 대양을 건너가 미국의 《인준》을 받아야 했고 그 후광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는것은 세상이

《력사가 심판할것이다.》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은 종미에서 잉태했고 종미는 보수 《정권》의 명줄로 되고 있다. 하기에 집권하자면 대양을 건너가 미국의 《인준》을 받아야 했고 그 후광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과거는 략하고 지금의 보수당국이 미국에 그토록 아부하는것도 저들의 생존과 장기집권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지금 북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야 하는것이다. 따져보면 종미의 뿌리는 종미이다. 70년 전 조국해방과 함께 의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렬의 시작과 함께 어제날의 친일파, 종일세력이 종미세력으로 변신한것이다. 2007년 보수가 권력을 가로채면서 종미와 더불어 종일의 본색도 완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올해 1월 남조선의 21세기 민족주의포럼 대표가 언론에게 재한 기고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리명박 《정부》 시절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가 국민여론이 좋지 않자 부랴부랴 취소한적이 있었다. 그것을 변형시켜 《한미일군사정보협정》을 맺은것이 박근혜 《정부》다.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고 기술하는 교과서교과서를 채택하게 하려고 동원력을 동원해서 온갖짓을 한것이 박근혜 《정부》다. ...이들은 친일파의 후예이고 현재 그들자신이 바로 친일파이다. 뿌리가 그렇고 흘러온 력

사가 그렇고 현재 그들의 머리속에 깊이 박혀있는 생각이 그렇다.》

이전 보수집권자가 일본을 향해 《미래지향적관계》의 미소를 짓고 《천황》에게 굴종의 허리를 굽힐 때, 현 집권 《종북》소동은 동족인 북을 《주적》으로 삼고 남조선 내부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으로 지향하는 자그마한 싹까지도 뿌리채 뽑아버리고 외적으로는 종미, 종일의 일본도로 나간다. 남는것은 파썸이고 동족대결과 전쟁이며 의세굴종이다. 종미, 종일의 사대굴종에 민족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무모한 《종북》소동으로 남조선은 독재와 매국배족이 활개치는 인린불모지, 대결의 란무장으로 화하였다. 남조선사회의 엄혹한 현실과 북남관계의 극단한 사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우리 민족끼리의 벽찬 시대를 가슴아릿하게 떠올린다. 그때는 황당한 《종북》소동이 없었고 종미, 종일은 쥐구멍에 들어가지 않았다. 남조선 각지에 민족, 통일의 훈향이 차넘치고 북남사이에는 하나로 된 왕성하고 활기찬 전진만이 있었다.

자가 일본에 아부의 손을 내밀 때 종일세력은 읍지에서 양지로 빠졌이 나와 활개치게 되었다. 종미는 종일에서 유전되었고 변종되었다. 종미와 종일은 사대굴종의 동이이다. 《종북》소동의 리념적근원은 동족대결을 심어주고 부추겨온 종미, 종일인것이다.

## 우리 민족끼리로 나아가자

우리 민족끼리는 지나간 과거의 향수가 아니라 오늘의 목표이고 실천이어야 한다.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서도, 북남사이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위해서도 민족에게 재난을 가져오는 종미, 종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로 나아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종북》소동을 끝장내는것, 그것은 진보와 보수와의 대결이 아니라 민주와 독재와의 대결, 자주와 사대와 결산이다. 종미, 종일을 청산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사회의 민주화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려는 인민들의 목소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 우리 민족끼리의 거세찬 흐름이. 본사기자 김정혁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느라면 어처구니가 없고 상식적으로도 통하지 않는 황당한 일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미국인 수십명이 몇몇 《탈북자》들과 함께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반공화국배를 뿌린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목인조장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거의 같은 시각 지난 시기 북을 방문하여 보고들은것을 이야기했다고 하여 재미동포 신은미를 강제출국시키고 통일운동단체 소속의 황선을 《보안법》에 걸어가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사실 진짜 표현의 자유로 옹호해야 할 사람들은 신은미, 황선이다. 그들은 자기가 본 진실을 그대로 전

**시론**

**서로 다른 두 자대**

달하였기때문이다. 반대로 잡아가두어야 할자들은 년초부터 북남관계에 엄청난 해독을 끼치며 사실을 터무니없이 왜곡조하여 반북심리모략행위에 나선 미국인들과 《탈북자》들일것이다. 그런데 일은 거꾸로 되었다.

무슨 일에서나 일이 제대로 되려면 자대가 하나여야 한다.

오래전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한다. 어느 마을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신부가 가져온 신랑의 옷은 몸에 걸치지도 못할 정도로 작고 신랑이 가져온 신부옷은 몸에 비해 너무 커서 입을수가 없었다고 한다.

분명 몸을 어느 정도라도 재고 옷을 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며 몸의 치수를 알려준 사람이 잘못 말해주었는가. 아니었다.

당시에는 길이를 재는 단위가

척이었다. 문제는 매 지방마다 척의 기준이 다른데 있었다. 같은 척이지만 신랑이 사는 지역의 척은 크고 신부가 사는 지역의 척은 작았던것이다. 일은 거기에서 발생했다.

먼 옛날 이야기이지만 오늘도 교훈을 새겨주는 이야기이다.

사회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 나이와 취미, 생각, 신앙, 소속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있고 이러한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올바른 자대가 있어야 한다. 이것없이는 사회가 유지될수 없고 매 사람, 매 지역, 매 나라마다 저마다 기준이 달라 복잡성과 혼란이 조성될수밖에 없다. 오늘 국제적으로 각종 규격을 표준화하여

쓰는것도 이때문이다. 그 규격, 기준, 자대는 가장 보편적인것이여야 하고 하나여야 한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배라살포와 북에 대한 강연회와 관련하여 취한 서로 다른 조치들을 보면 독특한 자대도 없고 털끝만한 공정성도 없다.

화해와 통일, 진실추구를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리의를 척도로 하여 사건을 판단하고 처리한것이 아니라 순수 권력의 눈맛, 입맛을 기준으로 자의대로 판단하여 어떤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어떤것은 범죄로 잘못 규정 한것이다.

너자들이 북을 다녀와서 보고들은 그대로 말하는것이 무엇이 무서워서 쫓아내고 잡아가두기까지 하는가 말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어이 없이 쓰이는 일은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중상모독하는 배라살포는 비호두둔하면서도 집권자를 비난하는 배라를 뿌리고 집회를 하는것은 즉시에 경찰을 동원하여 제지하고 잡아가두고있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 대결의식이 얼마나 골수에 사무쳤으면 한쪽은 방패로 옹호하고 다른쪽에는 동등이를 휘두르며 판이한 이중기준을 적용하는가 하는것이다.

이런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고 굴러갈수가 없다. 남조선에서 배라살포, 《중북》소동으로 사회가 시골벽적이고 북남대결에 이어 남남갈등도 갈수록 커지고있는것이 우연한것이 아니다.

모든게 빼놓아진 자대를 만들고 《표현의 자유》라는 자대도 왕창같이 써먹고있는 남측 당국의 탓이다.

인류를 위협하는 미국의 위협천만 한 핵에 대해서는 일인반구도 못하면서 동족이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보유하지 않으면 된 자위의 핵, 민족공동의 재부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위협》이니, 《폐기》하느니 하고 악청을 돋구어대는것도 세상사람들이 아연해할 판이한 이중기준, 반민주적인 일변도정책의 극치이다. 피부색이 검다고 하여 백주에 사람들이 마구 싸죽이는 인권유린의 왕초 미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입만 벌리면 터무니없이 《북의 인권》을 떠드는것도 마찬가지이다.

자대는 하나여야 한다. 미국에 대고 말하는 자대가 다르고 북에 대해 말하는 자대가 다르면 미국에게는 삼살해, 동족에게는 대결쟁이라는 세인의 조소와 비난밖에 받을것이 없다.

허성철

**박연미 - 전쟁도화선의 불씨인가**

아마도 세인들은 1991년 이라크전쟁전야에 유엔무대에서 있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할것이다.

묘령의 처녀가 불쌍한 표정으로 눈물을 찔찰 흘리며 애처로운 목소리로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 병사들의 《만행》을 고발하던 광경을.

《그들은 병원에 뛰어들어 무자비한 살육을 감행했어요. 지어 보육기인의 갓난애들을 꺼내 바닥에 마구 뿌려던것입니다.》

그의 증언을 청취하던 각국의 대표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으며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반대하던 아랍세계의 나라들까지 미국 주도하의 다국적군에 뛰어 들게 되었다.

결국 한 처녀의 《증언》은 미국의 대이라크 침략전쟁개시의 불씨의 하나로 되었고 결과 주권 국가의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합법적정부가 무너지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 땅에서는 종족분쟁 및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있다.

당시 이라크전쟁에 참가했던 나라들은 자기들이 인류의 문명과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 나섰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후 유엔무대에 증언을 위해 나선 처녀가 미중앙정보국의 각본에 따라 선정되고 훈련받은 미국 주재 쿠웨이트대사관 관원 의 딸이며 그가 한 증언이라는것들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이 드러나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결국 미국의 각본에 따라 펼쳐진 하나의 기만극에 세상이 속히우고 그 결과로 하나의 주권국가가 완전히 짓밟게졌다.

그때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오늘날 세계를 기만하는 광대극이 미국의 조종하에 또다시 벌어졌다.

지나해 10월초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열린 세션 청년수뇌자회의에서 조선 옷차림의 박연미라는 처녀가 자신을 《탈북대학생》이라 자칭하며 자기가 보고 들었다는 이른바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증언》해나섰던것이다.

얼굴을 눈물로 얼룩지며 자기가 소녀 시절 북에서 《풀을 뜯어먹고 잡자리를 잡아먹으며 살았다.》느니, 《친구의 어머니 처형》이니 하는 거짓말

을 소설처럼 엮어대는데 신통히도 13년전 이라크군의 《반인륜적만행》에 대해 《고발》하던 쿠웨이트 처녀를 방불케 하였다.

박연미의 연기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여기에 만족한 미국과 남조선의 조직자들은 《진술》이 끝나자마자 온 얼굴에 웃음을 함뱌고 그의 잔등을 두드려준 다, 손을 잡아준다 하고 너스레를 피웠다.

일단 연기는 잘했으니 다음차례는 세계가 북의 《반인륜적만행》에 대해 격분하는것이였다.

아일세라 서방의 어용 선전수단들이 박연미의 《증언》장면을 대서특필하고 그의 수기를 출판한다고 법석 떠들어대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 연극의 연장선에서 미국은 지난해말에는 유엔 무대에서 불법무당한 대조선 《인권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내는데 이르렀다.

사실들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압살하기 위해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미국의 《시간표》대로라면 이제 남은것은 박

연미와 같은 인간추물들을 불씨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것뿐이다.

그러나 이 밝은 세상에서 거짓은 통할수 없고 진실은 밝혀지기마련이다. 오늘의 세계는 13년전 그처럼 미국의 광대극에 또다시 속아넘어갈 세계가 아니며 공화국은 물 먹은 담뱃처럼 쉽게 무너져버린 이라크가 아니다.

리성을 가진 세인들은 박연미의 진술을 놓고 완전한 남조선과 비난하고 있으며 지어 고향을 등지고 달아난 《탈북자》들내에서조차 박연미의 허위증언이 자신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우는 소리가 튀어나오고있다. 공화국은 자기 인민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부정하고 붕괴시키려는 미국과는 더는 마주 앉을 용의가 없으며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되어있다는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미국은 공화국의 이 단호한 결심과 의지를 똑바로 파악하고 정책결정을 바로해야 한다.

본사기자 최명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해군참모총장은! "강경주변이 원치 않으면, 마을에 군관사 짓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이게 무슨 짓이나? 마을주민 기만하는 공사 중단하라!

본사기자 최명제

남조선당국이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반공공기를 하고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연이어 남조선에 날아든 미국무성 정무차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조선의교부 당국자들은 《북핵문제는 국제비확산체제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현안》이라느니, 《양국이 북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느니 하며 떠들어댔다. 상진의 발뒤꿈치에 매달려 반공화국핵공조를 애원하는 비굴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최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들은 위협수위를 넘어서고있다.

새해벽두부터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직접 《대통령행정명령》으로 새로운 대조선 《추가제재》를 선포한데 이어 공화국을 《가장 고립되고 가장 단절되고 가장 잔혹한 독재국가》, 《시간이 흐르면 그런 정권은 무너질것》이라는 악설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정계와 군부우두머리들도 줄줄이 나서서 《테로지원국》 재지정과 《초강도추가제재》로 공화국에 대

한 고립과 압살의 봉쇄망을 더 바짝 조여보려고 광기를 부려대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의 핵전쟁장비들이 남조선에 쏟아져들어와 연합훈련을 벌린다

어쩐다 하며 돌아치고있다. 온 겨레가 새해에는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풀어진 민족적 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나갈 열의로 불타고있는 때에 벌어지고있는 미국의 이러한 도발책동은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미국이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대조선압살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 이루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고있는 지금 그에 추종하여 대결과 전쟁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의 행위는 그들이 부르짖는 《대화》라령이 한갓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화와 관계개선을 하려면 미국과 전쟁공조를 할것이 아니라 동족의 진정어린 애국의 호소에 하루빨리 응해나서야 한다.

김철민



**심각한 미국의 사이버테러**

불의 발 견으로 부터 시작된 인류의 발전력은 20세기 컴퓨터의 개발과 더불어 전성기에 이르렀고있다.

문제는 인류의 진보와 문명에 이바지할 최첨단 과학기술자들이 일부 나라들에 의해 도리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되어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는것이다.

그 하나가 미국에 의해 감행되는 사이버테러이다. 최근 미국안전보장국의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우덴이 도이칠란드주 간잡지 《슈피겔》의 웹 사이트를 통해 미국정보기관이 전세계에서 사이버전쟁을 다그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감행한 도청사건이 드러난데 이어 미국이 사이버테러까지 감행하고있다는 소식은 세인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스노우덴이 폭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원격조정, 악성비루스주입, 해킹공격 및 반공격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이버테러를 감행하고있으며 여기에는 미국과 몇몇 추종국가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와 개인이 다 대상으로 되고있다고 한다.

따지고보면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그 대상이 바로 이란이다.

현 미당국자는 첫 임기기간인 2010년 이란핵시설에 대해 《올림픽경기대회》라는 명칭으로 사이버공격을 진행할데 대한 비밀명령을 내렸다. 컴퓨터체제에 《등대》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란핵시설의 내부운영설계도를 절취한 미국은 뒤이어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개발한 악성비루스 《스톡스네트》를 정탐수단을 통해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연결시켜 인입시킴으로써 이란핵시설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비단 이란뿐만이 아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2011년 한해동안에만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230차례 걸쳐 사이버공격을 감행하였다고 한다. 공개된 자료가 이렇하니 흑막속에 감추어

저있는 사이버테러까지 합하면 그 회수와 규모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사실상 미국에 있어서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하늘과 땅, 바다, 우주에 이

어 5번째의 영역으로서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나라들이나 개인들에 대한 선제공격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세계적으로 사이버전쟁을 중요시 하고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있다. 미국방성이 방대한 규모의 사이버사령부를 내오고 그 지위와 권능을 확대강화하고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전에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2013년에 미국방성이 사이버사령부규모를 지난해의 5배이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공격능력을 갖춘 사이버군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사이버분야에서 미군의 행동을 공격형사이버전략으로 전면이행한 미국은 세계에 대한 패권주의적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 하고있다.

공화국과 이란을 비롯한 반미나라들은 물론 로씨야와 중국 등 지역대국들, 지어는 경쟁적인 동맹국들까지 사이버전략실현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